제3장

명청대 유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9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명·청대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개별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연구재단 수록 논문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 명·청대 유학〉 시기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 24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물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2. 인물별 분류

1) 왕양명(양명후학) 관련 논문(18편)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박길수	왕양명의 일성(一性) 이론 연구-주희의 성론과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유학연구소	유학연구
2	박길수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관점에서 본 왕양명의 심 본체론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3	선병삼	왕양명 심즉리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4	정갑임	왕양명의 심학(心學)과 공감	충남대유학연구소	유학연구
5	황진수	동서양 심성론의 측면에서 본 왕양명의 양지(良知)의 자족성(自足性)에 대한 고찰	충남대유학연구소	유학연구
6	권영화	왕양명의 양지와 베르그손의 직관에 대한 유사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7	이성호	왕양명의 양지론(良知論)에서 '허령(虛靈)'의 위상과 작용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8	안재호	왕수인 공부론 체계 관견(管窺)-치양지(致良知)는 양명학 공부론의 귀결인가?	율곡학회	율곡학연구
9	최재목	왕양명의 초상과 폐병, 그리고 측달지심(惻怛之心)의 관련성 시론(試論)	영남퇴계학연구원	퇴계학논집
10	김용재	전통유가(傳統儒家)와 왕양명(王陽明)의 '실천(實踐)' 중심의 교육관(敎育觀)-반주지주의(反主知主義) 성향을 중심으로-	온지학회	온지논총
11	이천일	왕양명 독서교육론 고찰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12	한정길	태주학파(泰州學派) 왕간(王艮)의 '안신(安身)' 설(說)에 기초한 경세사상(經世思想)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13	한정길	강우학파(江右學派) 관료지식인 양명학자의 경세사상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14	박현정	섭표 귀적설(歸寂說)의 즉체즉용(即體即用)	한철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15	김연재	나홍선(羅洪先)의 주정체오설(主靜體悟說)과 유일만수(惟一萬殊)의 도덕형이상학적 원리-적감체용(寂體感用)의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6	서강휘	기(幾)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 진명수의 심체관(心體觀)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17	이권효	위기의식과 철학의 정체성 검토-이지(李贄) 이해를 위한 새로운 단서-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18	조민환	이지(李贄)와 원굉도(袁宏道)의 '광자관(狂者觀)'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전체 24편의 논문 중에서 양명학 관련 논문이 18편으로 전체 편수의 75%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18년도 6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명·청대 중국유학 논문 중 양명학(양명후학) 비중이 2015년도 9편, 2016년도 12편, 2017년 21편, 2018년 17편이었다. 올해 편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국 학계에서 명·청대 중국유학 연구는 여전히 양명학 관련 연구가 중심에 있음을 또다시 확인했다.

(1) 박길수의 「왕양명의 일성(一性) 이론 연구-주희의 성론과 비교를 중심으로-」는 왕양명의 일성(一性) 이론을 논한 글이다. 왜 왕양명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통합한 일성을 주장했는지 고찰한다.

박길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일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정주학 성론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형이상과 형이하를 기준으로 천지지성(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성과 정, 사덕과 사단을 철저하게 이원화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왕양명의 일성 이론은 보다 심층적인 의의를 지닌다. 그것은 이론적 관심을 넘어서 각 개체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성을 실제적으로 체인하고 함양할 수 있는 실천적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심지어 성은 무선무악하고 내외가 없다고

말한다. 물론 왕양명이 말한 무선무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성의 본질과 특징을 이렇게 규정할 경우 성은 결국 비실체적인 현실적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사물과의 부단한 감응에서 오직 향선(向善)의 가능성을 구현하는 존재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 주체가 이러한 성의 본질과 특징을 체인하는 유일한 길은 시시각각 직면하는 사물(사태)상에서 부단히 실천적으로 위선거악(爲善去惡)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왕양명이 일성론을 제시한 본의는 무엇보다도 각 개체가 심신지학(心身之學)의 성학(聖學) 이념 아래 각자의 성의 본질과 특징을 직접적으로 체인하고 함양할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길수의 논의는 실상 주자학과 양명학의 갈래를 구분하는 기준과 상관이 있다. 즉, 주자학은 성즉리이고 양명학은 심즉리이다. 주자학은 성은 리이고 심은 이기지합으로 본다. 따라서 성은 리이지만 심은 리가 아니라고 한다. 굳이 말하자면 기이다. 한편 양명학은 성을 리라고 한다. 이점은 주자학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심을 리라고 한다. 물론 심즉리의 심은 본체의 심이다. 주자학자는 양명학자가 말하는 심은 기의 심이기 때문에 심즉리는 틀렸다고 하고, 양명학자는 자신들이 본체의 심을 상정하기 때문에 성즉리처럼 심즉리가 성립한다고 맞선다. 만약 이런 주장에만 기대어 상호 논쟁을 전개한다면 아무 결론도 내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박길수는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좋은 단초를 제공한다. 바로 "먼저 그는 주자학과 달리 고자(告子)의 생지위성(生之謂性)과 성즉기(性卽氣) 개념을 통합한 단일한 기질지성(氣質之性)을 강

조하고 나아가 독창적인 일성(一性) 개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그는 사덕(四德)과 사단(四端)을 모두 표덕(表德)으로 간주하여 기질지성에서 발생한 이발(已發)의 덕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주자학이 형이상과 형이하의 구분을 기준으로 제시했던 다양한 성과 덕 개념을 단일한 일성의 범주로 통합한다." 박길수의 입장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다.

⑵ 박길수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관점에서 본 왕양명의 심 본체론」은 왕양명 3대 학설(심즉리, 지행합일, 치양지)의 하나인 지행합일을 풀어간 논문이다. 박길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왕양명이 제창한 지행합일 사상은 이중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그가 생존했던 명대 중기의 성학의 쇠퇴 및 속학의 성행에 대한 깊은 성찰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속학을 대변하는 구이의 학문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성학의 실천과 관련하여 강론을 핵심 방법으로 간주하여 결국 앎으로부터 행위의 가치와 의의를 유리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왕양명은 용장오도 이후 일관되게 새로운 성학의 이념과 방법으로 심신지학을 제시한다. 심신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주체의 직접적인 체인과 자득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성현의 가르침에 대한 이론적 토론과 이해가 아니라 몸소 실천을 통해서 도를 자신의 심신으로 직접 자각하고 견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앎은 행위를 매개로 형성되므로 그 내용과 특징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형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체화된 인지나 실천지 또는 자기지의 특성을 띨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지행합일 사상을 제시한 왕양명의 본의는 당시 성행하던 주자학에 기초한 성학의 이념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려는 데 있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길수가 체화된 인지를 들고 나온 점은 현대 분과학문의 연구 성과를 원용하여 지행합일 이론의 성립 가능성을 탐색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지행합일은 앎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말인데, 앎과 행동은 일치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든 수긍할 것이지만 앎과 행동은 일치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길수는 현대 분과학문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이를 해명하려고 한다.

(3) 선병삼의 「왕양명 심즉리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왕양명의 심즉리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선병삼은 이렇게 말한다. “본 논문은 양명학의 핵심 명제인 심즉리를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바로 ‘용장오도(龍場悟道)’, ‘심변시리(心便是理)’, ‘심외무리(心外無理)’이다. ‘용장오도’는 왕양명이 심즉리를 깨닫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심즉리의 실존적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심변시리’는 심이 리라는 의미에 입각하여 분석하였고, ‘심외무리’는 심 밖에 리가 없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심변시리’와 ‘심외무리’는 양명학의 도덕실천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용장오도’는 양명학의 개성존중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검토했다. 본 연구는 왕양명의 심즉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며 양명학이 지니고 있는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특징과 개성 존중을 강조하는 특징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4) 정갑임의 「왕양명의 심학(心學)과 공감」은 동양철학(공자, 장자,

왕양명)의 공감을 살펴본 후에 공감의 현대적 실천으로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대화 프로세스'를 소개한 글이다.

정갑임의 주장은 이렇다. "왕양명은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인간에게 천지자연을 낳고 살리는 생명의 이치인 인이 본성〔性〕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공감은 왕양명 심학의 전체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왕양명은 현대의 심리학이나 상담심리 영역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여러 감정 상태나 정서들, 즉 불안, 근심, 즐거움, 기쁨, 안정 등을 인간의 본성(本性)과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그가 선한 본성의 실현과 감정을 밀접하게 연관시킴으로써 성체와 심체를 통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왕양명은 도덕적인 행위가 타율적인 의무나 외적 강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마음〔本心〕이 지닌 생동감과 기쁨으로 인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촉발된다고 본다. 이러한 왕양명의 심학에서의 공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감수성으로서의 공감, 자기실현의 동력으로서의 공감, 통합지성으로서의 공감, 그리고 성선(性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공감을 부각시킬 것이다."

(5) 황진수는 「동서양 심성론의 측면에서 본 왕양명의 양지(良知)의 자족성(自足性)에 대한 고찰」에서 양지의 성립 가능성을 따진다. 황진수의 논문은 양명학을 접한 연구자들이라면 의심을 가질 법한 질문은 던진다. 양지는 자족적인가?

황진수의 입장은 이렇다. "선진시대부터 신유학에 이르는 심(心)에 대한 여러 담론들, 특히 맹자, 순자, 이고, 북송오자, 주희 등의 주장과 청대 대진(戴震)의 주장, 그리고 서양 고대 철학자들인 프로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인간본성에 대한 시각을 함께 살펴보았다. 『전습록』 상에서 양명이 말한 양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친구 고동교(顧東橋)와 제자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도 검토하였다. 다산의 치양지에 대한 비판내용과 현대의 과학적 시각등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양지가 양명이 주장한 대로 스스로 넉넉하여 충분한 '자족성'을 갖추고 있다는 논리의 타당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동양과 서양의 지(知)에 대한 차별적 개념을 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의 필요성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양명학 연구자들이 보기에 황진수의 결론은 양명학의 기본 전제를 고려하지 않은 소치로 보인다. 그러나 양명학의 기본 전제를 용납하지 않는 연구자에게 양명학의 기본 전제를 수용하라는 주장은 별반 위력을 갖지 못한다. 양명학이 성립되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위에 소개한 박길수와 선병삼의 논문은 양명학적 기본 전제를 밝히는 글이다.

⑹ 권영화의 「왕양명의 양지와 베르그손의 직관에 대한 유사성에 관한 연구」는 서양 철학에 소양이 있는 연구자라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법한 비교 연구 주제다. 양명학과 칸트 도덕형이상학의 비교, 양명학과 훗셀 현상학의 비교처럼 양명학과 베르그손 직관의 비교는 다뤄볼 만하다.

권영화의 입장은 이렇다. "베르그손과 왕양명의 직관과 양지 개념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왕양명의 심(心) 개념이 인식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편적 원리인 리(理)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베르그손의 직관은 대상 안에서 대상과 완전히 하

나가 되는 절대적 인식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속되는 대상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매개물도 필요 없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인식으로써 직관이 발생한다. 그러나 베르그손의 직관은 생명체가 도덕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생명체가 기계나 물질보다 존엄한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왕양명의 도덕적 양지개념이다. 왕양명의 양지는 진리에 대한 인식보다는 도덕에 대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왕양명의 양지는 도덕주체의 작용이다. 양지는 인간이 지닌 선천적 것으로써 진리를 선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베르그손은 직관을 사용하여 물자체는 알 수 없다는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입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추론과 오성의 지성으로는 물자체를 알 수 없지만 직관으로는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당대 과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베르그손은 생물학에 기대어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다. 애초 베르그손 직관과 왕양명 양지가 지향점이 다른 설임을 인정하고 시작한 이상, 권영화의 " 베르그손의 직관은 생명체가 도덕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주장은 다소 억지스럽게 들린다.

⑺ 이성호의 「왕양명의 양지론(良知論)에서 '허령(虛靈)'의 위상과 작용」은 허령의 의미를 파악한 글이다. 이성호의 주장은 이렇다. "맹자에 연원한 양지는 양명에 의해 순수지선한 천명지성 그 자체가 자신의 밝은 빛을 드려내는 명각으로서의 양지로 재규정 된다. 양지의 조리 창출과 시비판단의 능력도 양지의 허령불매 즉 텅 비고 영명하여 어둡지 않은 속성으로 인해 발현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여기서 텅 비었다는 것은 양지의 존재론적 본체에 속하고 영명하다는 것은 양지의 인

식론적 작용에 속한다. 이와 같은 허령불매한 양지는 양명학이 양지를 중심으로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철학을 만들어가는 위상을 갖게 하였다."

이성호는 허를 양지의 존재론적 본체로 영을 양지의 인식론적 작용으로 구분하였는데, 왕양명은 허와 령을 본체와 작용으로 나누지 않았다. 이런 구분은 성리학적 논법에 익숙한 연구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왕양명 양지론에서 허령의 위상과 작용은 주자학의 성(性)과 다른 양지를 포착하는 지점에서 논해야 된다.

⑻ 안재호의 「왕수인 공부론 체계 관견(管窺)-치양지(致良知)는 양명학 공부론의 귀결인가?」는 치양지를 전반적으로 다룬 글이다. 왕부지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공자로서 양명학에도 소양이 깊다는 것을 이 한 편의 글을 통해서 양명학 전공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줬다. 양명학의 치양지를 공부하려는 독자들에게는 좋은 안내의 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기존의 연구 성과에 비해 새로운 모색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아울러 소제목으로 '치양지(致良知)는 양명학 공부론의 귀결인가?'을 달고 있어서 독자들이 그러면 다른 공부론이 있나? 하고 기대를 하게 하는데, 내용은 치양지 공부론을 충실히 소개하고 있어서 내용과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다.

⑼ 최재목의 「왕양명의 초상과 폐병, 그리고 측달지심(惻怛之心)의 관련성 시론(試論)」은 논자의 기존 연구 논문에서 드러나는 연구 특징이 잘 드러난 글이다. 사소하고 쉽게 간과할 만한 지점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최재목의 기존 발표 논문들을 일람하면 그가 이런

연구에 발군의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재목은 이렇게 말한다. "이 논문은 왕양명의 초상과 폐병, 그리고 측달지심(惻怛之心)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논한 것이다. 양명학을 보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많은 사상가들의 생전 모습은 대체로 초상화를 통해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왕양명의 경우는 좀 특별하다. 어딘가 병을 앓는 듯하다. 양명의 질환에 따른 고통, 그런 신체감각이 철학사상을 구축하는데 깊이 연관돼 있음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양명 스스로 '오신지질통(吾身之疾痛)'이란 말을 썼다. 그의 사상의 발신지는 구체적 몸(신체)이지 관념적 머리(정신)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 언어는, 신체가 만들어낸 신체감각 즉 '체감(體感) 언어'이지, 두뇌가 만드는 개념적 '추상(抽象) 언어'가 아니다. 양명이 말하는 '신체의 질통〔身之疾痛〕'은 바로 '진성측달지심(眞誠惻怛之心)'이고, 진성측달지심은 '양지(良知)'의 활동/전개〔=致良知〕이다. '신체의 질통〔身之疾痛〕'='진성측달지심(眞誠惻怛之心)'='치양지(致良知)'는 '시비(是非)', '호오(好惡)'를 직관한다. 왕양명은 스스로 질병을 껴안고 있으면서 병들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고자 했던 이른바 '상처 입은 의사(wounded healer)'였다. 그래서 왕양명은, '진성/성애측달지심(眞誠/誠愛惻怛知心)이 없다면', '양지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눈'의 진정한 의미는 '눈물'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성과 논리(=눈)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과 자비(=눈물) 쪽에 있다는 말이다. 왕양명은 그의 치양지(致良知) 철학을 성애측달지심(誠愛惻怛之心)이라는 '구원과 구제의 자비(慈悲)' 쪽에서, 시비지심(是非之心)이라는 '지혜(智慧)-이성(理性)'을 껴안는 방향으로 구축하였다." 최재목의 기존 논문에 대한 호불호가 여기에도 적용될 것 같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독자도 있을 것

이고, 수필 같고, 가볍고, 작위적이라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⑽ 김용재의 「전통유가(傳統儒家)와 왕양명(王陽明)의 '실천(實踐)' 중심의 교육관(敎育觀)-반주지주의(反主知主義) 성향을 중심으로-」와 ⑾ 이천일의 「왕양명 독서교육론 고찰」은 양명학을 교육론이 입장에서 전개한 글이다. 기존에 나온 연구 성과를 정리한 글이다.

⑿ 한정길의 「태주학파(泰州學派) 왕간(王艮)의 '안신(安身)'설(說)에 기초한 경세사상(經世思想)」은 논자가 근년에 탐구한 장기 주제의 결실이다. 양명학은 심학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심신지학이라고 한다. 심성론이 학설의 중심을 이룬다. 그래서 양명학을 내성학(內聖學)의 극치라고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유학은 내성(內聖)과 외왕(外王), 성기(成己)와 성물(成物)을 기본으로 한다. 양명학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주자학이 경서와 예치를 강조한 반면 양명학은 자득(自得)을 높이고 예경(禮敬)을 낮춘 경향이 분명하다. 한정길은 양명학에서 기존에 주목한 내성학에서 시야를 확대하여 외왕학에 주목한다.

왕간은 태주학파의 영수로서 양명학의 평민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왕간의 격물설은 평민화 양명학의 이론적 출발점이다. 한정길은 이렇게 정리한다. "왕간은 당시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현실 상황을 비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구제하고자 한다. 그의 구세정신에는 만물일체 사상이 근저에 놓여 있다. 왕간은 선한 세상을 만드는데 책임 있는 주체로 서고자 한다. 왕간은 그 방법을 『대학』에서 찾는다. 왕간은 '지어지선(止於至善)'을 '안신(安身)'으로 풀이한다. 그의 안신설은 '몸〔身〕'에 대한 독특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에게 '몸'

은 생명주체일 뿐만 아니라, '도'를 행할 수 있는 행위주체이다. 왕간은 이 '몸'을 사회와 세계의 근본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사회와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몸을 먼저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간은 이 안신을 전제로 새로운 출처관을 제시한다. 왕간의 출처관은 '출사해서는 황제의 스승이 되어야 하고', '물러나서는 천하 만세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명대 중·만기 군주권이 절대화된 정치상황에서 황제의 스승이 되기는 어려웠다. 왕간은 민간에 있으면서도 도를 행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백성을 깨우쳐 도를 행하는 '각민행도(覺民行道)'의 길이다. 이 방법은 왕수인이 일찍이 개척한 바 있다. 왕간은 강학을 통하여 이 길을 일반 민중들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확장시켰다. 태주 후학은 왕수인이 개척하고, 왕간이 확장시킨 이 길을 따라 유가의 도를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전파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명대 중·만기 사회상황 하에서 서민의 사회적 지위를 새롭게 발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왕간의 격물설을 일명 회남격물설(淮南格物說)이라고 하는데, 안신설(安身說)이 그 핵심이다. 회수 남쪽인 태주에서 왕간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서 부른 명칭이다. 안신설은 명철보신론(明哲保身論)과 연결되며 요즘으로 말하자면 호혜주의(互惠主義)와도 연결된다.

⒀ 한정길의 「강우학파(江右學派) 관료지식인 양명학자의 경세사상-추수익(鄒守益)을 중심으로-」는 앞서 소개한 논문과 궤를 같이하는 연구 성과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추수익은 강우학파에 속하며 양명학을 온전히 계승한 정통으로 평가를 받는다. 양명학 정통파로 평가받는 추수익을 통해 경세사상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면, 양명학을

외왕학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도는 한결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한정길의 분석은 이렇다. "추수익은 양명학의 치양지설을 '계신공구'로 대체하고, 그것을 학문의 종지로 삼는다. 그리고 '계신공구'의 '경' 공부를 강조함으로써 주자학의 거경설을 수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경'의 기능에 대한 이해에서 주자학과 결을 달리하는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경'을 양지를 실현하는 치양지의 방법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자학적인 '경'을 양명학의 치양지의 방법으로 재해석해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양명후학이 그 공부법에서 내면이나 외면으로 치우치는 폐단을 바로잡고자 했다. 다른 하나는 '경'을 자기 수양만이 아니라 경세의 강령으로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을 수기와 치인의 통일적 방법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계구'의 '경'을 종지로 삼는 추수익의 학문은 경세사상에서는 '경사(敬事)'를 강령으로 하는 정치·사회활동으로 전개된다. 그에게서 '경사'는 구체적인 일에서 양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늘 경계하고 삼가는 것이다. 추수익은 경세에서 향촌을 매우 중시한다. 향촌의 구성원들을 교화시켜 선하게 만드는 일이 천하를 선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향촌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자각은 향촌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근본을 두고 있다. 그는 '평민'을 예교 실천의 담당자로 본다. 이것은 '사'계층만이 아니라, '평민'계층까지 예교 실천의 주체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는 향촌사회의 예교문화 회복이라는 과제를 두 가지 방면에서 수행한다. 하나는 예교 실천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성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제를 실천 가능한 형태로 재정비하는 작업이다. 전자는 주로 강학을 통하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예의 내적 본

원인 양지를 각성시키는 일로 전개된다. 후자는 주자가 예를 실천 가능한 행례서로 다듬거나, '가보'나 '족보'를 편찬하거나 향약을 제정하는 등의 일로 전개된다. 이 글이 지니는 연구사적 의의는 추수익의 '경'을 중시하는 공부법이 '경사'를 강령으로 하는 경세사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정길의 본 논문은 추수익의 경세사상을 요령 있게 잘 정리했다. 경세사상 측면에서 왕간이 많이 알려졌다면 양명학의 정통파로 평가받는 추수익은 학계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정길이 자술하듯이 추수익의 '경'을 중시하는 공부법을 '경사'를 강령으로 하는 경세사상과 연결하여 논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⑭ 박현정의 「섭표 귀적설(歸寂說)의 즉체즉용(即體即用)」은 섭표의 귀적설을 즉체즉용의 입장에서 설명한 글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섭표를 공격한 다른 양명후학들은 섭표의 귀적설이 즉체즉용의 체용론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현정은 이렇게 정리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귀적설은 수렴적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발산의 과정을 수반하는 의미에서의 수렴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의 귀적설은 왕수인의 격물의 공효와 의념 상에서의 치양지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단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본문은 이러한 특징이 섭표가 왕수인 즉체즉용 논리의 보다 적확한 의미를 적출해 내는 과정에서 발생된 하나의 변용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본문은 섭표 귀적설이 왕수인의 즉체즉용에 어긋난다는 종래의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섭표의 귀적설은 '적(寂)' 안에는 이미 '감(感)'을 수반하였다(歸寂以感

通)는 점에서 왕수인의 즉체즉용(即體即用)을 보다 적확하게 뽑아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섭표가 허적 양지와 귀적 치양지를 제출했을 때 그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왕기와 왕간 등이 현성양지(現成良知)를 주장하면서 유종주가 양지학의 병폐로 꼽았던 정식(情識)을 양지(良知)로 정당화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양명학의 특징으로 꼽는 평민화 유학은 정식(情識)에 대한 수용의 여지를 넓힌 것은 틀림없지만 양명학이 이학(理學)이라는 소위 송명이학으로 지칭될 때는 존천리거인욕에 기반을 두는 인심도심론(人心道心論), 구성지학(求聖之學) 등을 부정할 수 없다. 정식은 이런 측면에서 교정되어야 한다. 섭표의 귀적설이 나온 이유다. 그런데 섭표의 귀적설은 주자학의 성(性)과 양명학의 양지(良知)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무력화시키는 위험을 노출한다. 양명 입문제자들이 섭표 귀적설을 집중 공격한 이유다. 곧 양지의 즉체즉용을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본 논문에서 박현정이 섭표의 귀적설을 즉체즉용이라고 옹호하면서 구사한 전략은 섭표의 주장을 옹호할 근거들을 양명의 글에서 끌어오는 방식이다. 이는 논쟁 당시 섭표가 구사했던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당시 섭표가 받은 공격을 생각하면 지금 또다시 이 전략을 구사하는 데에 의문이 든다.

⑮ 김연재의 나홍선(羅洪先)의 주정체오설(主靜體悟說)과 유일만수(惟一萬殊)의 도덕형이상학적 원리-적감체용(寂體感用)의 방식을 중심으로-」는 섭표의 든든한 우군으로 현성양지설에 비판을 가했던 나홍선의 양지론을 다룬다.

김연재의 정리는 이렇다. “그는 주정체오설(主靜體悟說)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서 도덕성의 본질과 그 가치론적 내용을 밝히고자 했다. 주정체오설은 『주역』의 적연감통설(寂然感通說)과 주돈이의 주정설(主靜說)을 전거로 하는데, 심학의 체계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는 생명의 통합적 지평 즉 궁극성 본원성 및 잠재성의 삼차원이 있다. 이 차원은 지행합일의 의식적 과정에서 본체와 공부의 내재적 관계로 귀착된다. 이를 본체론의 범주에서 보면 삼중의 논점 즉 의 방식의 원리 및 의 경계가 있다. 여기에는 또한 세 가지 노선 즉 본체공부(本體工夫)의 동일선 체용불이(體用不二)의 연속선 및 적연감통(寂然感通)의 연장선이 있다. 이 논점과 노선이 수양론의 도덕형이상학적 성격에 접근하는 방법론이 된다.”

김연재는 나홍선의 주정체오설을 도덕형이상학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잘못된 분석은 아니지만 나홍선의 양지학을 밝히는 데에는 일정 한계를 갖는다. 양명학자 누구도 김연재가 제시한 세 가지 노선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나홍선 양지학의 특징을 다른 양명후학에 견주어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⑯ 서강휘의 「기(幾)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 진명수의 심체관(心體觀)」은 한국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진명수의 양지학을 밝힌 논문이다. 서강휘는 진명수 철학으로 북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 진명수 사상을 가장 잘 아는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서강휘는 이렇게 말한다. “진명수는 양명의 직전제자로서 『전습록』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전습록 201조목에서 247조목은 진명수의 기록이다. 왕용계와 구양덕, 추동곽과 함께 양명에게서 직접 사사 받은

몇 안 되는 제자이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지만 그의 문집이 활자화되어 출판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는 총 3번에 걸친 학문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가 양명후학 내에서 존재이유를 갖는 것은 공부와 본체의 합일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심무정체(心無定體)라는 본체관은 공부와 본체의 합일을 해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그는 심체에 대한 이러한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역전」과 「통서」를 이용하였다. 심무정체가 지향하는 바는 본체는 공부를 통해서 확보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의 가능지점을 주역과 「통서」의 기(幾)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그는 통서의 '성신기왈성인(誠神幾曰聖人)'이라는 구절을 '성신기일야(誠神幾一也)'로 변형하여 기미상의 실천 공부를 통해서만 본체와의 합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전개했는데 이러한 그의 주장은 양명후학에 대한 사상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지점이라 하겠다."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소개한 본 논문은 의의가 있다. 아울러 논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⒄ 이권효의 「위기의식과 철학의 정체성 검토-이지(李贄) 이해를 위한 새로운 단서-」는 이단아로 평가받는 이지의 평판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지가 거센 주류사회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온한 사상을 퍼트리지 않을 수 없었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이권효의 입장은 이렇다. "이 논문은 중국 명대 양명학자 탁오 이지의 삶과 사상을 위기의식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지에 대한 기

존의 평가는 공자에 저항한 유학의 반역자라는 인식이 주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지가 공자의 학문 태도인 개방적인 호학 정신이 퇴보한 것을 위기상황으로 보고 이를 회복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지는 유학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학문으로 전락한 현실을 위기의식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그는 당시 유학이 타락한 주요 이유를 공자의 삶에서 멀어지는 데서 찾았다. 그는 유학자의 올바른 모습을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유(通儒)라고 보았으며 공자와 왕양명을 통유의 전형으로 보았다. …… 이 논문은 이지를 유학의 이단자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그가 깊이 천착한 내면의 동기에 주목하였다. 그가 시대와 격렬히 대립하게 된 배경에는 유학이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던 특별한 동기가 흐른다. 논문은 이지의 위기의식이 철학의 정체성에 닿는 보편적 차원이라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떠받치는 논증이 없다. 아쉬운 점이다.

⑱ 조민환의 「이지(李贄)와 원굉도(袁宏道)의 '광자관(狂者觀)'에 관한 비교 연구」의 논문은 광자 정신을 표방한 두 명의 예술가를 비교한다. 명대 문예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두 인물의 동이를 따지는 작업은 관심이 간다.

조민환의 결론은 이렇다. "중국사상사에서 '광자(狂者)'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자가 광자를 선택적으로 취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주희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면, 왕수인(王守仁)은 '광자흉차(狂者胸次)'를 통해 '광자'의 높은 기상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 광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 같은 왕수인을 높이는

이지와 원굉도는 이제 광자를 매우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이지는 음양론에 입각해 과거 중국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광자(狂者)'과 '견자(狷者)'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특히 '애광(愛狂)'을 강조한다. 원굉도는 '광자'와 '견자'의 진정한 쓰임새 즉 '대용(大用)' 차원과 '용(龍)의 덕'을 통한 광자관을 전개해 사회적으로 광자의 장점을 살릴 것을 강조하는 광자관을 전개한다. 이런 사유들은 주희가 중용과 중행(中行)을 중심으로 하여 광자가 '고원(高遠)'한 만을 추구하고 실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 속하는 이해다. 이지와 원굉도는 광자들이 '진취성', '대담성', '개방성', '비판성', '비타협성'을 통하여 기존 유가의 사유틀 속에서 억압된 인간의 자연천성(自然天成)의 진심(眞心)을 회복하고자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점이 있다. 하지만 '언대(言大)'와 '지대(志大)'를 통해 광자를 규정하는 이지가 주장한 '애광'은 광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라는 식의 견해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식취(識趣)'와 '용(龍)의 덕'을 통해 '광'을 규정하는 원굉도의 '대용(大用)' 차원의 광자관은 '애광'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광자를 이 시대에 맞게끔 활용하라는 사유가 담겨 있다. 이에 이른바 '광자의 대 사회적 효용성 강조'를 통해 새로운 광자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지와 차이점을 보인다." 이 글은 명대 철학과 문예사조의 키워드 중 하나인 광(狂)을 이해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준다.

2) 왕부지(2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진근	'태극론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그 해소-주희와 왕부지의 '태극'론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2	이철승	왕부지 철학에 나타난 '화(和)'론 문제-『논어』와 『중용』의 '화(和)'관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2014년 리포트를 작성한 이래로 왕부지 연구는 매년 1편 이상이 학계에 보고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명말 청조의 대유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인물이다.

(1) 김진근의 「'태극론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그 해소-주희와 왕부지의 '태극'론을 중심으로-」는 논자의 지속된 문제의식을 발전시킨 결과물로 사료된다. 십여 년 전에 논자는 리가 기를 낳는다는 이생기(理生氣) 사유가 조선의 유학자들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이생기의 가능성을 논하다가, 혹자로부터 주자학 공리에서 이생기는 성립할 수 없다는 반박을 받은 적이 있었다. 본 논문은 그에 대한 해명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근은 이렇게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돈이(周敦頤)로부터 주희(朱熹), 왕부지(王夫之)에 이르는 '태극'론을 다루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동아시아 철학을 연구하는 이들에게서 '태극'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데, 동아시아철학사에서는 11세기에 이르러 주돈이가 『태극도설(太極圖說)』을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이후 동아시아철학사에서 '태극'론이 주요 논제가 된 것은 『태극도설』의 저자인 주돈이의 영

향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희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주희는 주돈이의 원본 『태극도설』을 그대로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관점인 이본론(理本論)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버렸다. 그 결과 우리가 『태극도설』을 이해하는 데서 두 가지 난점을 초래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태극생양의(太極生兩儀)'에서의 '생(生)' 자를 처리하는 것이 난감하다는 것과 태극이 이일체(理一體)이기 때문에 '태극생양의(太極生兩儀)'라 하면 '이생기(理生氣)'라 하는 난점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후 조선의 철학자들에게서 여실하게 드러났다. 셋째, 왕부지의 '태극'론에서는 주희에 의해 초래된 위의 두 가지 난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재(張載)의 기일원론(氣一元論)을 계승하며 기철학(氣哲學)을 집대성한 것으로 알려진 왕부지는, 이미 이 두 가지 난점을 의식하며 자신의 '태극'론을 펼치고 있다."

김진근은 이본론의 입장이 아니라 기본론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주돈이 「태극도설」을 문제없이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은 기본론의 입장에서 전개되었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이생기는 주자학 체계에서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진근의 입장은 아래에서 다시 한 번 논하겠다.

⑵ 이철승의 「왕부지 철학에 나타난 '화(和)'론 문제-『논어』와 『중용』의 '화(和)'관을 중심으로-」는 주희의 이해 방식을 달리하는 왕부지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리철학이 아니라 기철학의 특징에서 발현되었다고 본다.

3) 대진(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빈나	주희와 대진의 신체 담론에 대한 비교연구:'수직적 복성'과 '수평적 확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정빈나의 「주희와 대진의 신체 담론에 대한 비교연구:'수직적 복성'과 '수평적 확충'을 중심으로」는 다층적인 목적을 가진 논문이다. 첫째는 주희로 대표되는 이학과 대진으로 대표되는 기학의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진의 신체 담론을 서구의 인지이론과 체험주의의 시각에서 풀어가는 것이다.

정빈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희와 대진은 철학사적으로 대립관계로만 이해되지만 신체에 대한 양자의 담론에는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본문은 주희와 대진 양자의 신체 담론이 가진 특징과 서로의 차이를 분석하여 그 속에 담긴 사상적 함의들을 추출해내려 한다. 이를 통해 신체에 대한 주희와 대진의 관점을 '신체의 도덕-소외화'와 '지각기반으로서의 신체'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수직적 복성론(復性論)'과 '수평적 확충론(擴充論)'으로 정의하려 한다, 이는 주희와 대진 양자의 신체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차이에 기인한다. 양자의 신체 담론은 리학과 기학의 단순한 대립 구도에만 의존해 구축되지 않는다. 대립의 배후에는 본성과 선함에 대한 양자의 상이한 이해가 개입되어 있다. 이 대립구도를 해부하는 작업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몸에 대한 주희와 대진의 관점이 각각 리기(일원론적) 이원론과 기일원론을 배경으로 도덕-소외화의 대상으로서의 신체와 지각기반으로서의 신체란 차이로 이어지며 여기에는 '수직적 복성'과 '수평

적 확충'의 구도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주희와 대진의 신체 담론에 대해 서구의 인지이론과 체험주의를 동원한 비교 철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환기한 뒤 이상의 논의들이 갖는 철학적 의미와 앞으로 의연구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송대 이학, 명대 심학, 청대 기학이라는 틀은 직관적인 도식이다. 직관적인 도식이라 이해가 쉽고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있다. 기학을 이학과는 이질적인 성향으로 평가하는 류이다. 정빈나는 단순화의 위험을 피하면서도 주희와 대진으로 대표되는 이학과 기학의 차이를 신체 담론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밝혔다.

4) 황도주(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홍태	황도주의 주륙관 연구	율곡학회	율곡학연구

임홍태의 「황도주의 주륙관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이 가는 주제다. 첫째는 한국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황도주를 다루고 있다. 황도주는 동림학파(동림학파) 이후로 명말청초의 황종희, 고염무, 왕부지 이전까지 시대를 배경으로 유종주와 더불어 명말의 거유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둘째는 주륙관 연구다. 송대 주자학과 명대 양명학 비교 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동이 평가이다. 이학과 심학이라는 점에서 다르면서도 이학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한 이 두 사상 체계를 공평하게 비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명대 심학의 여진이 남아 있던 시기 황도주가 바라본 주자와 육상산 이해는

이학과 심학의 동이를 따지는 작업에 좋은 선행 연구 자료가 된다. 특히 유종주가 양명학에 우호적인 측면에서 이학과 심학의 종합을 논했다면 황도주는 주자학에 우호적인 측면에서 이학과 심학의 종합을 살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자료의 가치가 높다.

5) 기타(2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기현	신유학의 형이상학 전환-이체기용(理體氣用)에서 이승기기(理乘氣機)에로-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2	성호준	청대 유의(儒醫) 장남(章楠)의 태극·음양론 고찰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문화연구

(1) 김기현의 「신유학의 형이상학 전환-이체기용(理體氣用)에서 이승기기(理乘氣機)에로」는 상당히 야심찬 주제를 다루는 논문이다. 이체기용에 심학을 대응하고 이승기기에 이학을 대응하면, 이 논문이 송대 주자학과 명대 심학을 형이상학적으로 고찰함을 알 수 있다.

김기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글은 성리학(주자학)이 의거하고 있는 형이상학이 동아시아의 형이상학 역사에서 기존의 것을 대체하여 새롭게 건립된 것이었음을 논의한 것이다. 주희에 의해 정립된 이 새로운 형이상학은 "태극자 본연지묘야; 동정자 소승지기야(太極者, 本然之妙也; 動靜者, 所乘之機也." 16글자를 근간(根幹)으로 한다. 이 언명의 실질적 내용은 리(理)와 기(氣)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성리학의 정립자인 주희의 관점에서 볼 때, 형이상자인 리와 형이하자인 기의 관계에 대해 기존 이학은 이체기용(理體氣用)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체기용 사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 주희가 반복하여 말한 것은

‘형이상자와 형이하자는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분명한 사실은 주희가 새롭게 제시한 대안인 이승기기(理乘氣機) 사상이 형이상학 면에서 기존의 이체기용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노선을 달리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측은지심 등의 본심(本心)을 사례로 비교 고찰하는 가운데 주희가 문제시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해낸다. 첫째, 음양오행의 부단한 운동 변화 과정인 현실 세계를 호상학자들이나 육구연처럼 형이상자인 리의 직접적인 운동 변화로만 설명하는 것은 ‘역유태극(易有太極)’ 명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역의 도덕형이상학에 맞지 않는다. 도덕, 즉 선은 운동 변화 과정의 산물이다. 선의 창출은 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리와 기의 공조(共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희의 도덕형이상학 입장이다. 둘째, 주희가 볼 때, 이체기용 노선의 이학에 의한다면 공부란 선천적 선심(善心)인 본심이 발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이전에 평상시에 해 두어야 하는 공부가 없다. 주희에 의하면, 선천적 선심을 확충하는 것보다 더 주력해야 하는 공부는 평상시에 함양하는 공부이다. 노선 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는 신유학인 성리학이 의거하는 형이상학과 기존의 이학들이 의거하는 형이상학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그러나 리가 선의 창출을 주재한다는 점에서는 두 도덕형이상학 간에 차이가 없다. 다만 이체기용 형이상학에서는 리가 직접 활동함으로써 천리(형이상자)의 현현(顯現)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승기기 형이상학에서는 형이상자가 기(氣)의 기(機)에 승(乘)하여 기(氣)의 운행 과정에 간여(干與)하는 가운데 선의 창출을 주재하는 차이가 있다. 당연히 리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형이상학 간의 이러한 차이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철학적 오해가 쌓여가게 되고, 지

금까지 적지 않게 그래왔다.”

김기현은 이승기기의 주자학과 대비하여 이체기용의 형이상학으로 호상학과 상산학을 거론했다. 상산학은 심학의 연원임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고, 모종삼은 호상학의 이심저성(以心著性)의 명제를 들며 유종주 심학의 연원으로 꼽았다. 그러니 상산학과 호상학을 김기현이 거론한 것은 일정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심학은 이체기용의 형이상학이고 이학은 이승기기의 형이상학인지 여부는 한 번 따져볼 소지가 있다. 아래에서 다시 논하겠다.

⑵ 성호준의 「청대 유의(儒醫) 장남(章楠)의 태극·음양론 고찰」은 한국 동양철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는 주제를 다룬 글이다. 성호준은 한의학을 공부한 동양철학자로 본 논문은 본인의 학술적 특장을 살린 글로 사료된다.

장남은 주자학, 역학, 불학, 의학 등에 정통했는데 특히 의학에 탁월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장남에게서 형이상학적 논의를 경험과학적 요소를 갖고 있는 한의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바로 성호준이 말한 “그는 주자(朱子) 등의 성리학을 수용하고, 태극과 중화의 논의를 통하여 의학과 역학을 계통적으로 이해한 특징이 있다. 생리적 생명과 도덕적 심성을 둘이 아닌 하나의 체계 속에서 논의하고, 음양 중화를 통해 의학적·철학적 이상을 구현하려고 하였다.”는 평가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국내 명청대 유학 연구는 앞에서 밝혔듯이 양명학을 중심에 둔다. 양명학은 송명이학이라는 말처럼 주자학과 뗄 수 없는 관계망을 형성한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같음과 다름을 따지는 문제는 송명이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다. 19년도에도 주자학과 양명학의 동이를 논한 논문들이 다수 있다. 그중 박길수와 김기현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박길수는 양명학을 중심으로 주자학과 양명학의 동이를 논했고, 김기현은 주자학을 중심으로 주자학과 양명학의 동이를 논했다.

박길수는 「왕양명의 일성(一性) 이론 연구-주희의 성론과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주자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분, 사덕과 사단 구분에 대해 왕양명의 일성론과 표덕론을 제시한다.

먼저 성론에 대한 설명이다. "주희의 성론은 왕양명의 성론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먼저 맹자의 성선에 관해 견해를 살펴보면, 주희가 성선의 상위의 근거로서 천지지성을 새롭게 설정한 것과 달리, 왕양명은 맹자의 성선을 성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향선의 능력으로 이해하되 그로부터 주희처럼 천지지성이나 본연지성과 같은 또 다른 성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 수미일관 기질지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주희가 천명지성과 기질지성을 기질과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것과 달리, 고자의 '생지위성'에서 애초부터 '생(生)' 자를 '기(氣)' 자로 치환하여 '성즉기(性卽氣)'의 사상을 제시한다. 이것은 2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기질지성으로부터 성과 기질을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다른 하나는 기질지성 외에 천지지성이나 본연지성과 같은 또 다른 성 개념이나 그에 따른 요소들은 애초부터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바로 이것이 왕양명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일성(一性) 개념의 주요 의의이다."

다음으로 덕성에 대한 설명이다. "사덕은 성리에 속하는 형이상자로서 본체, 미발, 정(靜)에 해당하고, 사단은 정(情)에 속하는 형이하자로서 작용, 이발, 동(動)에 속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성정과 관련하여 사덕과 사단을 이렇게 이분화하고 또한 사덕을 성리와 마찬가지로 형이상자로 구분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사덕을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난제에 직면한다. …… 곧 성의 본질이 곧 선인데 이처럼 이해할 경우 선은 오직 이발 시 사단에만 해당되고 미발 시 사덕은 이것을 초월하는 이치로만 설명되므로 선의 최종정인 근거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희는 그의 심성론 체계에서 이러한 관점을 일관되게 고수한다. …… 왕양명이 심과 관련하여 말한 체(體)나 본체(本體)는 '본래 모습'이라는 의미로 마음의 본래성, 곧 본래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왕양명이 심의 본체로 제시한 성은 심성의 분리가 아닌 동일성을 전제로 심의 본래성을 지적하고자 사용한 개념이다. …… 왕양명은 사덕과 사단을 모두 이발로 규정하고 그 근거로 표덕(表德) 관념을 제시한다. …… 따라서 그가 이처럼 사덕을 표덕에 귀속시킨 의도는 무엇보다도 주자학의 사덕 개념으로부터 미발과 형이상의 속성을 해체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만일 주희처럼 사덕의 존재성을 사단이라는 구체적인 감정의 체험으로부터 미루어서 형이상의 영역에 추상적으로 설정한다면 주요 덕성을 이원화하게 될 뿐 아니라, 공부의 주체가 언제나 사단을 넘어서 사덕을 체험하려는 공부 이념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 결국 사단 상에서 덕성을 연마하고 체인하는 실제적인 공부의 의의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양명의 관점에서 천지지성이

나 본연지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덕과 사단은 모두 이러한 단일 기질지성에서 발현된 표덕들에 불과하다. ……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은 선험성에 기초한 절대적인 성선 개념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선악의 기준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단점으로 비춰질지도 모른다. …… 이것은 결국 기존의 덕성(德性)을 덕행(德行)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오히려 덕행을 덕성의 실질적인 내재적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기현은 「신유학의 형이상학 전환-이체기용(理體氣用)에서 이승기기(理乘氣機)에로-」에서 이체기용(理體氣用)을 심학으로 이승기기(理乘氣機)를 이학으로 배치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김기현은 이렇게 말한다. "다만 이체기용 형이상학에서는 리가 직접 활동함으로써 천리(형이상자)의 현현(顯現)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승기기 형이상학에서는 형이상자가 기(氣)의 기(機)에 승(乘)하여 기(氣)의 운행 과정에 간여(干與)하는 가운데 선의 창출을 주재하는 차이가 있다. 당연히 리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형이상학 간의 이러한 차이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철학적 오해가 쌓여가게 되고, 지금까지 적지 않게 그래왔다."

그렇다면 왜 주자는 이체기용에서 이승기기로 전환하게 되었는가? 김기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우리는 이 글에서 측은지심 등의 본심(本心)을 사례로 비교 고찰하는 가운데 주희가 문제시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해낸다. 첫째, 음양오행의 부단한 운동 변화 과정인 현실 세계를 호상학자들이나 육구연처럼 형이상자인 리의 직접적인 운동 변화로만 설명하는 것은 '역유태극(易有太極)'명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역의 도덕형이상학에 맞지 않는다. 도덕, 즉 선은 운동 변화 과정

의 산물이다. 선의 창출은 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리와 기의 공조(共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희의 도덕형이상학 입장이다. 둘째, 주희가 볼 때, 이체기용 노선의 이학에 의한다면 공부란 선천적 선심(善心)인 본심이 발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이전에 평상시에 해두어야 하는 공부가 없다."

두 연구자의 논의를 들어보면 기시감이 든다. 기존의 주장을 또다시 만나게 된다. 바로 박길수는 왕양명이 일성론과 표덕론을 통해 도덕실천을 강화했다는 입장이고, 김기현은 주자가 이승기기를 통해 실제적 도덕실천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박길수의 입장을 따르면 주자학은 도덕실천을 약화한 것으로 되고 김기현의 입장을 따르면 양명학은 올바른 도덕실천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학은 도덕실천을 강조한다. 주자학도 양명학도 도덕실천을 강조한다. 그래서 모두 이학이다. 그런데 주자학을 기준으로 삼으면 양명학은 올바른 도덕실천을 하지 않았고, 양명학을 기준으로 삼으면 주자학은 도덕실천을 약화했다. 결국 양대 진영의 오래된 주장을 또다시 맞닥뜨리게 된다.

선병삼은 「왕양명 심즉리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 양명학의 양면적 특성을 논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현대 양명학 연구자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양명학을 주목한다. 바로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성 존중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먼저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은 양명이 도덕이 상실되고 공리(功利)를 추구하는 시대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모습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양명이 구이지학(口耳之學, 곧 章句之學) 반대, 세속화된 주자학 아류 비판, 엄정한 노불(老佛) 비판 등을 전개하면서 명실상부한 구성지학(求聖之學)을 건립하려고 했던 점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개성 존중을 강조하는 입장'은 양명

학이 개인의식이 확산되고 유상병용(儒商竝用)의 이른바 명대 자본주의 맹아기를 배경으로 시대와 조응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양명학의 개인 정감(욕망) 긍정, 평민사상 고취, 예속(禮束)의 반대, 삼교합일적 경향 등에 초점을 맞춘다. 전자의 측면을 강조한 연구자로는 모종삼(牟宗三)과 오카다 다케히코(岡田武彦)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후자의 측면에 주목한 연구자로는 시마다 겐지(島田虔次)와 여영시(余英時)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보여주듯이 양명학은 도덕 실천의 측면이나 개성 존중의 측면으로 모두 설명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입장을 동시에 비교하면 표면적으로는 상호 모순적인 관계를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령 욕망을 두고서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절제에 중점을 둔다면, '개성 존중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 ……본 고찰이 타당하다면 왕양명이 37세에 깨달은 심즉리 안에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정신'과 '개성 존중을 강조하는 정신'이 함축되어 있어서 왕양명 사상을 이루는 두 축임을 긍정할 수 있다. 곧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성 존중을 강조하는 입장'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 전자 또는 후자의 입장에 강조점을 둘 수는 있지만 양명학을 전자만으로 혹은 후자만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박길수와 김기현의 논문은 주장의 일관성과 치밀함을 갖춘 노작들이다. 그럼에도 개념어의 사용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길수가 주자학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분을 반대한 왕양명이 기질지성 외에 다른 성을 상정하지 않은 일성론을 견지했다는 주장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박길수의 주장에는 은연중 양명학과 기학의 연관시

키는 연구 사조의 경향이 배어있다는 의혹이 든다. 한편 김기현이 양명학(상산학)을 이체기용으로 주자학을 이승기기로 명명한 데에도 질문이 없을 수 없다. 주자가 중화구설 때 호상학의 성체심용을 받아들였다가 중화신설 후에 심통성정을 주장하면서 성체심용을 부정했는데, 그렇다고 하여 성체심용을 이체기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주자학 독존을 표방했던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이생기를 주장한 맥락을 고려하면, 주자가 성체심용은 거부했을지언정 이체기용을 옹호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승기기로 주자의 도덕형이상학을 규정하지만 박길수의 논문에서 주장하듯이 이승기기가 도리어 양명학과 친연성이 높다는 비판도 역시 가능하다.

김진근의 「태극론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그 해소-주희와 왕부지의 '태극'론을 중심으로-」도 논자의 지속된 문제의식을 발전시킨 노작이라고 할 수 있다. 수년 전에 논자는 리가 기를 낳는다는 이생기(理生氣) 사유가 조선의 유학자들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이생기의 가능성을 논하다가, 혹자로부터 주자학 공리에서 이생기설은 성립할 수 없다는 반박을 받은 적이 있었다.

현재 김진근은 자신의 옛 주장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주희는 주돈이의 원본 『태극도설』을 그대로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관점인 이본론(理本論)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버렸다. 그 결과 우리가 『태극도설』을 이해하는 데서 두 가지 난점을 초래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태극생양의(太極生兩儀)'에서의 '생(生)' 자를 처리하는 것이 난감하다는 것과 태극이 이일체(理一體)이기 때문에 '태극생양의(太極生兩儀)'라 하면 '이생기(理生氣)'라 하는 난점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후 조선의 철학자들에게서 여실하게 드러

났다."는 말에서 읽힌다.

김진근은 주돈이의 「태극도설」이 기본론(氣本論)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태극생양의(太極生兩儀)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자가 태극을 리(理)로 풀면서 태극생양의가 문제에 봉착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장재의 기철학을 계승한 왕부지가 태극의 원의인 기본론을 회복하면서 태극생양의 난제가 해소되었다고 본다.

한정길의 「태주학파(泰州學派) 왕간(王艮)의 '안신(安身)'설(說)에 기초한 경세사상(經世思想)」과 「강우학파(江右學派) 관료지식인 양명학자의 경세사상-추수익(鄒守益)을 중심으로-」 또한 노작이다. 일반적으로 주자의 성즉리(性卽理)와 양명의 심즉리(心卽理) 명제를 가지고 주자학과 양명학의 동이(同異)를 따지는데 이를 학술적 혹은 철학적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학이 현실 정치와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으로 갈리는 근거로 송나라와 명나라의 정치문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자인 여영시(余英時)는 이에 착안하여 송대는 득군행도(得君行道), 명대(청대)는 각민행도(覺民行道)로 구분하였다. 여영시가 제시한 각민행도의 도식을 통해 양명학을 겨냥한 임정종욕(任情縱慾), 창광방자(猖狂放恣), 방기공부(放棄工夫), 엽등공부(躐等工夫) 등의 비판에 방어막을 펼 수 있다.

양명후학 연구는 양명학 연구에서 역시 중요 주제다. 양명후학 연구는 양명후학 개인 연구와 더불어 분화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국내 학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양명후학 분화는 오카다 다케히코의 도식이다. 그는 양명후학을 정통파, 수증파(우파), 현성파(좌파)로 나눈다. 오카다 도식의 가장 큰 약점은 현성파와 정통파를 구분하는 기준

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는 현성파는 본체를 중시하고 공부를 무시했으며, 정통파는 본체를 중시하고 공부를 중시했다고 한다.

현성파의 대표인물은 왕기와 왕간 등이고, 정통파의 대표인물은 전서산, 구양덕 등이다. 수증파의 허적 양지 본체론과 귀적 치양지 공부론에 대해 현성파와 정통파는 공히 반대한다. 우파에 대해 정통파와 좌파가 공동전선을 편 데에는 양지 본체와 치양지 공부에 대한 공통의 입장이 작용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지 본체는 미발과 이발을 불문하고 활발하다는 현성론을 공유하며, 치양지 공부는 양지대로 실천한다는 순종양지(循從良知)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오카다가 현성파와 정통파를 구분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실증이다.

박현정의 「섭표 귀적설(歸寂說)의 즉체즉용(即體即用)」은 섭표의 귀적설을 즉체즉용의 입장에서 설명한 글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섭표를 공격한 다른 양명후학들은 섭표의 귀적설이 즉체즉용의 체용론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현정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의 귀적설은 왕수인의 격물의 공효와 의념 상에서의 치양지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단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본문은 이러한 특징이 섭표가 왕수인 즉체즉용 논리의 보다 적확한 의미를 적출해 내는 과정에서 발생된 하나의 변용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본문은 섭표 귀적설이 왕수인의 즉체즉용에 어긋난다는 종래의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섭표의 귀적설은 '적(寂)' 안에는 이미 '감(感)'을 수반하였다〔歸寂以感通〕는 점에서 왕수인의 즉체즉용(即體即用)을 보다 적확하게 뽑아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섭표가 허적 양지와 귀적 치양지를 제출했을 때 그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섭표의 귀적설은 주자학의 성(性)과 양명

학의 양지(良知)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무력화시키는 위험을 노출한다. 양명 입문제자들이 섭표 귀적설을 집중 공격한 이유다. 본 논문에서 박현정이 구사하는 전략은 양명이 섭표의 주장을 옹호할 근거들을 끌어오는 방식이다. 이는 논쟁 당시 섭표가 구사했던 전략이기도 하다. 그 당시 섭표가 받은 공격을 생각하면 지금에 다시 이 전략을 구사하는 데에 의문이 든다.

치양지는 양지 순종이다. 양지는 생각(의식)의 일종이지만 내가 따르는 생각이라는 점에서 내 생각 안의 또 다른 생각이다. 이 줄기를 잡고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간재 전우의 성사심제(性師心弟)와 이심학성(以心學性)의 종설에서 양지 순종의 치양지 어법과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면 섭표 귀적설의 의의를 참신하게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4. 평가와 전망

총 24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로는 왕양명(양명후학) 연구가 18편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물론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15년도부터(14년 발표 논문 기준) 왕양명에 대한 연구는 늘 수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학계에서 명·청대 유학사 연구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명·청대를 기준으로 선별한 24편의 논문은 18년도 17편, 17년도 26편으로 예년 추세의 수량이면서 여전히 명대 양명학(심학)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군이 다양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한국내 연구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거니와 연구자 층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총 24편의 논문들 중에는 노작들이 상당수 있다. 학계에서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는 연구자들의 성과물이다. 그중 박길수의 「왕양명의 일성(一性) 이론 연구-주희의 성론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정길의 「강우학파(江右學派) 관료지식인 양명학자의 경세사상-추수익(鄒守益)을 중심으로-」, 김기현의 「신유학의 형이상학 전환-이체기용(理體氣用)에서 이승기기(理乘氣機)에로-」, 김진근의 「'태극론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그 해소-주희와 왕부지의 '태극'론을 중심으로-」, 안재호의 「왕수인 공부론 체계 관견(管窺)-치양지(致良知)는 양명학 공부론의 귀결인가?」 등을 꼽을 수 있겠다.